



현대차 '그랜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국내 판매는 6만7798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2%가 증가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현대·기아차의 전체 국내 판매량이 전년 보다 5.7% 증가했다는 것과 비교해도 유독 친환경차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브랜드 별로 보면 현대차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약 3만 7697대로 전년보다 29.3% 증가했고, 기아차는 3만101대를 판매해 증가율 45.9%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코나 하이브리드가 출시되는 등 하이브리드를 중심의 새로운 친환경차 모델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달달아 판매량 역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친환경차 판매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올 상반기 5만3000여대가 팔리면서 전년보다 53.3% 증가한 것은 물론, 전체 친환경차 판매에서 75%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현대차가 출시한 그랜저 판매량이 1만

# 친환경차 잘 나간다

올 상반기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현대·기아차 친환경차 국내 판매 6만7798대...1년 새 36.2% 증가



기아차 '쏘렌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6885대로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아차가 출시한 니로가 1만822대로 2위를 기록했다.

쏘렌토(6796대)와 K7(5547대), 쏘나타(4891대), K5(3797대) 등도 판매 호조를 보였다.

그랜저의 경우 지난해 7월 신형이 출시되면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쏘나타 하이브리드 역시 인기가 높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현대·기아차에서 출시하는 전기차의 판매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현대·기아차 전기차는 1만3950대가 팔리며 전년보다 11% 감소했다. 현대차 코나EV가 4139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이어 현대차 포터EV 3452대, 기아차 니로EV 2072대 등 순이었다.

코나EV는 국내 완성차 업계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였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7697대가 팔린 것과 달리 46.2%나 감소했다.

이는 전기차에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지 않았던 데다, 미국의 테슬라 모델3를 필두로 한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차도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편 수소전기차는 2612대가 판매돼 작년 동기 대비 69.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금호타이어가 추천하는 '여름철 타이어 관리법' 고속도로 주행 2시간마다 10분 휴식 장마철에는 타이어 마모 점검이 필수

여름철 장마와 휴가시즌을 맞아 차량을 이용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번덕스러운 날씨와 장거리 운행을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사고예방을 위한 '여름철 타이어 관리법'을 13일 발표했다.

이날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타이어를 점검할 때 외관부터 살펴봐야 한다. 외관 점검 시 바퀴를 돌려가며 눈과 손으로 타이어 트레드에 균열 및 손상이 없는지 살펴본다.

타이어에 박힌 작은 이물질이나 미세한 상처도 타이어 파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타이어 공기압이 부적절한 상태에서 고속 주행을 할 경우 타이어 파열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기압은 자동차의 하중을 견디는 동시에 추진력과 제동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적정 공기압만 유지해도 에너지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 타이어 수명 향상 등 효과를 볼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시속 100km 이상 고속주행 시 공기압을 적정수준보다 10~20% 높이는 것을 권장했다.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뜨거운 노면을 고속 운행하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해 자칫 타이어가 파열될 수 있어서이다.

고속도로 주행 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으로 타이어 과열을 예방하고, 공기

압을 평소보다 10% 높여주면 타이어 표면의 배수성을 향상시켜 미끄러짐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마철에는 타이어 마모 점검이 필수다. 빗 길에서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 '수막현상'이 발생, 제동력이 평소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타이어 마모상태는 트레드 주변 6곳에 표시된 삼각형(△) 모양의 방향을 따라 접지면 홈 속에 불룩하게 표시된 마모한계 표시를 보고 진단할 수 있다. 마모한계선은 1.6mm 높이로 표시돼 있으며 이 부분이 접지면에 노출될 정도로 마모되면 타이어 수명이 다한 것이다.

100원짜리 동전을 사용해 쉽게 타이어 마모를 확인할 수도 있다. 정상 타이어는 동전을 트레드 홈에 넣었을 때 이신신 장군의 갯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여름철에는 장마로 인해 잦은 빗길 주행으로 접지력이 저하될 수 있어 마모한계가 오지 않더라도 미리 교환하는 게 좋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특화 유동 브랜드 '타이어프로'는 '타이어 프로 퍼서널리즘'을 표방한 국내 업계 최초 타이어 전문 매장으로 무료 공기압 점검, 위치 교환, 펌크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계절을 떠나 가장 확실한 타이어 안전관리법은 꾸준히 타이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무한한 공간 활용성 일상에 최상의 가치 제공" 4세대 카니발 실내 공개



기아자동차는 4세대 카니발의 실내 디자인(사진)과 주요 편의사양을 14일 공개했다.

4세대 카니발 내장 디자인 컨셉은 '무한한 공간 활용성'으로, 일상에 최상의 공간과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신형 카니발 실내를 디자인했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우선 운전석에는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통합된 형태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고, 센터페시아 버튼은 터치 방식으로 구현했다.

특히 크렐(KRELL) 12스피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과 문 손잡이 쪽 '앰비언트 라이트'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로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한다.

동승자를 배려한 편의 기술도 돋보인다. 2열 좌석에는 탑승자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를 적용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탑승자가 무중력 공간에 떠 있는 듯한 자세로 만들어 엉덩이와 허리의 하중을 줄여준다. 또 기존 3l에서 5.5l로 늘어난 확장

형 센터콘솔을 적용했고, 레저 활동 등에 따라 수납공간 뒷부분을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4세대 카니발 크기는 전장 5155mm, 전폭 1995mm, 전고 1740mm, 축거 3090mm이며, 기존 모델 대비 전장은 40mm, 전폭은 10mm, 축거는 30mm 늘어나 동급 최대 실내

공간을 자랑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4세대 카니발은 여유롭고 안락한 공간성은 물론, 동급 최고의 첨단 신기술을 탑재해 차별화된 편의성까지 갖췄다"며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된 인테리어는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기아차, 대학생 서포터즈 '레드 크리에이터' 3기 모집

기아자동차는 기아차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대학생 서포터즈 '레드 크리에이터' 3기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 출범한 '레드 크리에이터'는 대학생들이 기아차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실무에 적용하도록 해 기아차와 대학생들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장기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다.

올해 8월부터 약 4개월간 활동할 이번 기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모집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면접과 발대식을 비롯해 모든 교육과 활동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개인으로 선발해 팀을 나누던 것과 달리 지원자들이 접수 단계부터 팀을 구성해 지원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수행하게 될 미션도 달라졌다. 1·2기가 팀별로 희망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던 것과 달리 이번 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아차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메인 미션 ▲기아차의 차량을 활용해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자동차 문화 변화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서브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과거 만족도가 높았던 팀별 1대1 실무 멘토링은 유지하면서 외부 전문가 특강인 '유레CAR 아카데미'를 보완해 전문성 있는 현직 자동차 에디터와 영상 전문가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기아차는 참여 대학생 전원에게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오는 11월 '랜선 시상식'에서 발표한 결과물을 토대로 우수 2팀을 선정해 최우수팀 500만원과 우수팀 200만원 등 총 7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8월 2일까지 레드 크리에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레드 크리에이터는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기아차의 대표 소통 프로그램으로 1·2기가 제안한 18개의 아이디어 중 7개 아이디어가 실제 현업에 적용됐는 것이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20년 7월호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여행 관광, 새로운 키워드를 찾아라

특집

뉴노멀 시대, 슬기로운 여름휴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야간관광 시도라, 삼림욕 만끽 남도 관광

문화 화제

서양화가 한희원 시화집 '이방인의 소묘' 출간, 전시

클릭, 문화현장 9-통영 윤이상 기념공원 "여기 윤이상선생이 살고 있다" 화제의 문화현장 청년들의 공간, 광주시민회관 FoRest971

예행이 만난 이 사람 '200경기 출장' 기록 광주FC 주장 여름

## 예향 초대석

'63년 외길'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 "영원한 광대인생을 살립니다"

우리 땅, 우리 문화 ① 보물 '미암일기'의 집 담양 모현관

행복한 동행-권리옹골과 함께하기 ② 전문가에게 배우는 반려견 미용

머물고 싶은 전남 행복술 ④ 7월의 명품술 진도 관매도 해송술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경관의 완성-에필로그 매력적인 도시디자인의 대전제는 '사람중심'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③ 대중문화와 연예인의 서울 초집중화 문제없나?

문화 트렌드 지금은 '굿즈 전성시대' 팬덤 있는곳에 굿즈 있다

문화 특특 디자인 광주 색깔은 아트숍, 문화상품들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⑧ 뮤지엄은 박물관인가, 미술관인가?

씨목씨목 남도 한 바퀴-영광 보물 가득한 옥다고들

-정빛길과 서해바다 -애물깁고, 모싯잎 송편